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8,5-8.14-17

화답송 | 시편 66(65),1-3 7.4-5.6-7 7.16과 20(◎ 1)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

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1베드 3,15-18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4,15-21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사랑과 계명

가끔 연락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설치 예술가인 남편은 작업의 특성 때문인지 언제나 군화처럼 생긴 작업화를 신었는데, 예술가답게 작업화도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가볍고 편한 운동화를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20여 년 작업화만 신던 남편은 부인이 선물한 운동화 덕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가던 남편은 진열된 운동화 한 켤레를 보고 맙니다. 그 운동화는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홀린 듯 매장 안으로 들어가 운동화를 집어 든 그는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운동화를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게다가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이렇게 마주쳐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해!’

어떡하면 부인을 설득해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찰나의 순간 억만 가지 수를 헤아린 남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사달라고 하면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포기해야 할 테니, 차라리 저지르고 야단을 맞자. 그럼 운동화는 남을 거 아냐.’

뿌듯한 마음에 운동화를 사 들고 귀가한 남편은 비장한 얼굴로 기꺼이 부인에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이만저만한 이유로 운동화를 샀으니 부인은 저를 벌하고 사하소서. 아멘!

자진신고를 마치고 고개를 든 남편은, 그러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부인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운동화를 봤을 때 내 생각이 안 났어? 난 좋은 걸 보면 늘 당신이 먼저 생각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내보이며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일치에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랑을 드러낼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여 우리 삶 가운데 현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명은 사랑을 구실로 서로를 옹아매는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은 서로가 품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 주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1요한 5,3)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1요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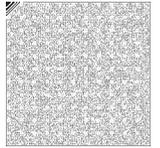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신리성지를 찾은 신자들이 주님의 성상 아래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흡사 두 팔을 벌리고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이수정 데레사 | 경기대학교 교수

| 다시 새기는 부활의 의미

얼마 전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이후 다시 살아남은 의미, 즉 죽음이라는 희생으로써 우리들에게 새 삶을 얻게 해주신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정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어느 때에는 판결 전 조사의 일환으로, 다른 때에는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수형자들을 간헐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같은 만남은 당연히 저를 위하여서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저와의 만남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길 위에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교도소는 일종의 쉬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태로운 시간 대신에 국가의 예산으로써 먹고 사는 부담을 현저히 완화시켜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만 다잡는다면 처벌을 받았다고 억울해하기보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성실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의(囚衣)를 입은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피해만을 호소합니다. 수형생활에 이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나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만 몰두합니다. 세상의 불공정함, 학교에서 당했던 무시와 냉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마구 쏟아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반사회성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까'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간혹 생각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그것은 아마도 지금

까지의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식했던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대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회개라는 것이 결코 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절절한 회개 없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과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들의 후안무치(厚顏無恥)를 보면서 수형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은 이제 그리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젊었던 시절 저도 남들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 자신조차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남용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상과 성화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성당에 가면 우리는 성모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상과 성화를 볼 수 있으며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 개신교 신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상숭배일까요?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떠올리고,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듯이 성상과 성화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훌륭한 표지가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 자체가 되지 않듯이 성상과 성화 자체가 실재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사진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듯 성상과 성화는 실재를 보여주는 표징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게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 초세기부터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모습과 행적을 담은 성상과 성화를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도와 복음선포의 도구로 삼았습니

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상과 성화를 통해 그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흠송하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지 성상과 성화 자체를 흠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화상을 특히 성당 안에 모셔 두고 이에 맞갖은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것 자체에 어떤 신성이 있다거나 덕이 있다고 믿어서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옛 이교도들이 하듯 우상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공경함은 이것들이 표상하고 있는 근본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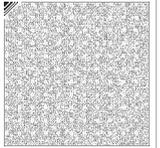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과 성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상과 성화 앞에서 하느님을 묵상하고 성인들의 삶과 믿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성상과 성화를 집에, 기도상 위에 하나의 장식처럼 비치해놓은 채, 마치 하나의 부적과 같이 여기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성상과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성상과 성화가 전해주는 장면을 그려보며, 마음으로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생생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2020 감독_그레타 거워

작은 아씨들



특하면 ‘우리한테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한 노파를 찾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주문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노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 너희가 받은 축복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파의 입을 빌어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아버지가 친구의 어려움을 돕다 재산을 잃어 가난해진 ‘작은 아씨들’에게 ‘마치 부인’은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존심을 이기는 법이란다.”

어린 시절 동화로도 읽었을, 루이자 메이 울컷의 자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 속의 네 자매는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자신들의 재능과 꿈을 하나씩 이뤄갑니다. 억지스럽지도 않고,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숙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유쾌하고, 아름답고, 몽클합니다. 참기 힘든 아픔도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콩코드에 사는 ‘작은 아씨들’은 순례자 놀이(천로역정)를 하듯 각자의 짐을 지고, 선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길잡이 삼아, 고난과 실수를 극복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웃음과 눈물, 존경과 사랑, 믿음과 나눔이 평화에 이르는 여정이며 곧 성장입니다. 1933년, 1949년, 1994년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영화로 찾아온

이유도 그 감동과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작은 아씨들>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딸들이 아닌 어머니 ‘마치 부인’입니다. 그녀는 어린 딸들이 가졌으면 하는 모든 미덕을 먼저 갖춘 본보기입니다. 가난하면서도 더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돌봅니다. 돈과 지위보다 품성과 인격과 교양이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타인을 너그럽게 용

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녀교육, 자녀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이고, 가장 좋은 가르침은 부모의 실천’이며 가장 달콤한 대가는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과 믿음입니다.

영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깊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딸들에게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열아홉 살에 죽음을 맞이한 셋째 딸 베스는 하느님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아픔과 슬픔을 희망과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조는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나 ‘광야의 시험’에

들 때가 있다. 하느님의 힘과 온유함을 본받는다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작가가 됩니다.

그녀는 “모든 근심과 희망, 죄와 슬픔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느님께 털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 힘의 원천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60년 전, 한 어머니의 충고와 믿음이 ‘코로나19’의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까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사람+] 신부님이 버스를 몰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요!



△ 서울 A지T 소장 은성제 신부와 상담가들이
A지T 버스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다.

버스를 몰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사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 A지T(아지트)’ 소장 은성제 신부입니다. 서울 A지T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인데요. 은 신부를 만나 서울 A지T와 ‘학교 밖 청소년’ 사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A지T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지T’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입니다. 실제로 직접 특정 장소에 버스를 몰고 가서 어려움 혹은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구청 등에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포함해 한 가정 전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대형버스 면허를 직접 취득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버스를 개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 면허가 있는 직원을 구하기 전에 직접 따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려면 저부터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A지T를 만들기 전 다른 이동 쉼터를 많이 가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없더군요.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소가 편해야 마음도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휴대폰 충전도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노래도 부르고 TV를 통해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희 버스에 찾아왔던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에 시달렸죠. 가출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가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쉼터로 보냈고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족들과도 만났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도 도왔습니다. 또 폭행 가해자는 경찰과 연결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A의 사건처리를 도운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후속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도 되는 ‘비밀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집 나간 작은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루카 15.11-32)와 같은 자비의 마음이 우리 버스의 모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 상담 봉사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겠죠.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양적인 결과물보다 벼랑 끝에 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정서적으로도 꾸준히 지원하며, 이들이 20세 이후 청년이 되어서도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구여진 플로라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 버스 운행 시간, 장소: 매주 목요일(17시~24시), 수유역 상산어린이공원
매주 금요일(16시~1시), 응암역 리드힐병원 앞.

* 문의: 02)382-5677, ajit@ajit.or.kr(코로나19로 인해 6월 중 오픈 예정, 서울A지T 홈페이지(<http://www.ajit.or.kr>)에 공지)

기후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누이이며 어머니 같은 지구 생태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2항]



우리는 올해 시작부터 여러 대륙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찍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 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부활절 전례 거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아무런 제어 없이 질주해 온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삼림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이 인간 세계와 먼 거리에 있던 바이러스들을 숲 밖으로 불러냈고, 인간세계의 고속화된 교통과 유통망은 이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각국의 국경 폐쇄와 물류 차단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지금 전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황을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고 경고하는 더 큰 재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빚어질 재난은 자연계 전체에 더욱 엄청난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들의 창궐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생태계 곳곳에 심각한 재난의 표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2018년)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아래로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1°C 상승하였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는 상승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에 따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국제 연합(UN) 보고서는 1.5°C 상승만으로도 심각한 물 부족, 폭염, 경작지 감소, 식량 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이어서 인류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무책임하게 모든 피조물을 남용하고, 혹사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오염과 질병과 기후 위기에 봉착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찬미받

으소서, 2항 참조]. 지구는 우리가 만들어 낸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우리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과 자연을 거슬러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구 생태계 위기에는 사회적 사랑으로 대처합니다. 검약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활 양식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2 선의의 모든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3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와 담당자들에게 호소합니다.

- (1)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도시가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십시오.
- (2)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정의에 입각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농·축산업의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십시오.
- (3) 기후 위기에 맞설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회의 선한 이웃들이 마치 '노아'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인다면[찬미받으소서, 71항 참조], 세계는 헛된 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고 지구촌의 파국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칙「찬미받으소서」5주년을 맞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단



기후위기QR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모아 봉헌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봉헌된 쌀은 헌금으로 환산하여 본당 봉헌일(5월17일)에 봉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02)727-226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0년 제15회 ‘교육 주간’ 안내

2020년 교육 주간은 5월25일(월)~31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톨릭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육 주간’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2020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성모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 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

입니다.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들을 첨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cus*

교구정일림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종석 알베르토green화대전: 제 1, 2전시실
 문혜숙 개인전(자수): 제 3전시실
 전시일정: 5월20일(수)~25일(월)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건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9109-2078 직장사목팀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전체 1-3등, 각 교구별 1등, 특별상 시상) / 문의: 02)777-2013
 때: 6월1일~7월10일(40일간) / 모바일앱 '가톨릭'에서 참여
 자세한 내용은(www.clak.or.kr) 또는 가톨릭앱에서 확인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카드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합니다
 환경사목위원회 웹사이트(www.ecocatholic.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02)727-2272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무료전화상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답답함, 불안, 우울, 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월-금, 10시~13시, 14시~17시) / 문의: 02)727-2137, 2138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모집

한국스카우트 · 걸스카우트 가톨릭연맹 서울지구연합회
 대원: 서울대교구 본당 주일학교 학생(6세~18세)
 지도자: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성인
 유의사항: 본당 사제 허가 필수(지도자는 면담 필요)
 문의: 02)762-0641(seoulscout@catholic.or.kr)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육친회 요한'
 때: 매일 셋째주(화) 5월19일 오전 11시(151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5월 시복시성 기원미사는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여 봉헌합니다 / 문의: 02)2269-0413

구역반장을 위한 공동체 되기 특강

대상: 구역장 · 반장 /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5월26일 마감)
 때, 곳: 6월2일(화) 10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회비: 3만원(교재 및 중식 포함)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함께하는 여정

대상: 함께하는 여정 교육을 받지 않은 예비신자 교리봉사자 /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때: 6월4일~7월30일 매주(목) 19시20분~21시(9주)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9만원(5월26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교리학교(오후반·저녁반)

대상: 함께하는 여정 교리 봉사자, 관심 있는 신자
 때, 곳: 6월9일~11월3일 매주(화) 14시~16시 · 19시~21시(15주), 교구청 강의실 501호
 회비: 12만원(6월2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구역반장 학교

대상: 신입 구역장 · 반장
 때: 6월10일~7월15일 매주(수) 13시~16시(5주)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5만원(6월3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준단체 일림

모임

복음화학교 대피정

때, 곳: 5월30일(토) 10시~17시, 동성고등학교 강당
 문의: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 피정

때: 매주(화) 10시 기도·11시 강의·14시 미사
 곳: 파타마 평화의 성당 / 문의: 031)952-6324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6월20일(토), 행주성당 외 4곳(의정부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사전접수 필수)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때: 6월19일~21일, 7월3일~5일, 7월27일~29일, 7월31일~8월2일 / 문의: 064)796-9181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6월26일(금)~28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6월18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둘깨 미디어

문의: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혼인 성소찾기 피정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둘깨생활 피정	접수: 다음카페 '둘깨생활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회성) / 문의: 010-3340-0201

효소단식 피정	6월4일(목)~7일(일)	회비: 28만원
성경완독 피정	6월26일(금)~7월4일(토)	회비: 48만원

어르신 사말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 · 미사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 문의(접수): 02)766-7370

죽음(선종)	5월26일(화) 10시~14시
심판·지옥·연옥·천국·성체·성모님	매일 셋째주(화) 10시~14시

제주 명현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5월25일~27일, 5월29일~31일, 6월2일~4일, 6월12일~14일, 6월17일~19일, 6월26일~28일
성지순례 피정	6월7일~10일

제주 성지순례 3일

지도: 안성철 신부(성바오로수도회)
 때, 곳: 5월25일~27일·6월5일~7일·6월16일~18일·7월23일~25일, 제주성지 7곳(성지 해설) /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지스 예수회 청년센터

문의: 02)3276-7706(magis.kr@gmail.com)

1) 청년 징검돌 무료 오후 피정

내용: 주일복음 묵상 및 나눔, 미사
 때: 마지막주(일) 5월31일 16시~19시
 곳: 예수회센터 1층 마지스 청년센터

2) 예수회 랑데부 연수(청년주제성찰배움터)

내용: 사랑의 언어와 결혼에 대한 성찰
 때, 곳: 6월20일(토)~21일(일) 1박2일, 예수회센터
 회비: 8만원(대학생 6만원)

씨튼 예비부부 주말 피정(씨예주 2박3일)

문의: 02)744-9825(www.setonsc.com) 씨튼 영성센터

19차	6월12일~14일	예비부부 및 신혼 2년 미만 주말 (금) 19시~(일) 16시 혼인교리로 인정
20차	9월18일~20일	
21차	12월18일~20일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 자격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6월4일~18일 매주(목)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6월1일~15일 매주(월) 13시~17시	회비: 15만원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 첫 토 성모신심미사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6월3일 9시30분~16시30분, 명동대성당 게스트홀 / 회비: 1만원 김밥 제공, 식수 준비 / 문의: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김용렬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신심미사	6월6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홍성남 신부

교육

목주 반지 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때: 매주(목) 9시~16시(3~6개월 과정)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곳: 가톨릭회관 3층 333호 / 대상: 글씨에 관심있는 분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20~30대 청년을 위한 구역특독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때: 6월~12월 (일) 16시~18시 / 문의: 010-4598-6912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장동) / 회비: 10만원(3개월)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 담당: 이경훈 신부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노틀담실천교리 일일연수

내용: 이미지와 활동을 통한 성경과 교리교육
 대상: 교리교사, 예비자 및 견진교리담당자
 때: 6월8일(월)·6월21일(일) 10시~16시30분
 곳: 노틀담교육관(종로구 북촌로)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 14세~24세
 활동: 진로진학 상담, 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중졸, 고졸 검정고시준비반 운영)
 곳: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역촌동성당 3층)
 문의(접수): 02)382-5652 / 홈페이지(www.ju.or.kr) 참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지원교사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인테리어 재능기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2020학년도 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석사과정(5학기) / 모집전공: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전공(CCM 작곡전공포함)
 학위 및 자격증 수여: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6월1일(월)~12일(금) 9시~17시 / 전형일장: 7월10일(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5(<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시스타나음악원 회원 모집 / 문의: 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 금) 11시	오후반	(화, 수) 19시30분(주1회)
-----	------------	-----	--------------------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마리아론 일체와 기도 /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문의(접수): 010-9620-4820, 02)774-0448

주간	5월29일~10월9일 매주(금)/5명 이상특혜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6-2호
야간		19시~21시	가톨릭회관 318-2호
청년반	5월28일~10월8일 매주(목)	19시~21시	가톨릭회관 318-2호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6주 과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몸 신학 교리 해설	(월) 10시~12시	김혜숙박사
코로나 사태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참여	(화) 10시~12시	김미정 수녀
창세-민수 만물의 시작, 믿음의 시작	(화) 19시30분~21시	주원준 박사
바로로 입문 과정	(수) 10시~12시	임숙희박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그리고 겸손-육화의 영성(7주 과정)	(목) 10시~12시	손우배 신부

성·사랑·생명은

언제나 우리 삶의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텀스타는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 2기반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727-2357 서울텀스타
 때: 6월9일(화) 오후 7시(3개월 과정)
 곳: 가톨릭회관 622호 / 회비: 3만원
 홈페이지 알림-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teenstar@hanmail.net) 접수 / 시작일과 별도로 향후 일정은 참가자의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모집

서울대교구 국악성이 우리소리합창단 단원 모집

창단 10주년 연주회를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 매주(월) 19시,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 02)868-1133

제7회 가톨릭영화제 사전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자막번역, 촬영, 홍보 등
 활동기간: 10월말까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사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집전: 송영호 신부 / 문의: 02)749-4596
 때, 곳: 5월25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의 성모 관상 수도회 영성미사·영성강의

영성미사·강의: 문호영 신부 / 대상: 가톨릭 신자
 때, 곳: 매일 넷째주(토) 5월23일 14시(미사·성시간),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32)933-7237, 4825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카카오톡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채널 추가
 문의: 010-4149-1853, 1854(carmelcenter.kr) 가르멜 수도회

첫토 성모신심미사	매일 첫번째(토) 10시30분
명사초청특강	5월29일(금) 13시30분 / 문자 사전접수
성시간	매일 마지막주(토) 5월30일 13시30분
문화강좌	숲해설·초공예·서예만 수시 모집

인간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상담·검사: 우울·불안, 성격, 대인관계, 가족, 진로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문의: 02)2258-7720
 상담비: 대학원생 5천원, 전문가 7만원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황성) / 개인, 소그룹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과 가족모임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수) 19시~21시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임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청년봄밤(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봄밤, 명동 언덕에서 울리는 청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 문의(접수): 010-6340-2696
 때, 곳: 5월29일(금) 19시30분,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서울관구 본원(명동대성당 뒤) / 대상: 20~30대 청년

제22차 프란치스칸 영성 학술 발표회

주제: 이스라엘 성지-과거와 현재
 대상: 영적성장을 바라는 모든 분들
 때: 6월22일(월) 8시30분~24일(수) 17시10분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10만원(1일 4만원, 중식 제공)
 문의: 02)6364-5640 프란치스코사상연구소

청소년 언어상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 문의: 02)2051-3743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대면상담

대면상담	우울·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 / 문의: 02)990-9360
여성의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때, 곳: 5월26일(화) 15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101호)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수원 성 빈센트 드블 자비의 수녀회	수시	본원(빈센트 병원 뒤)	010-8833-8107
울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8798-2986 미카엘 수사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불평 멈추기

살보 노에 지음 | 이창욱 옮김
바오로딸 | 232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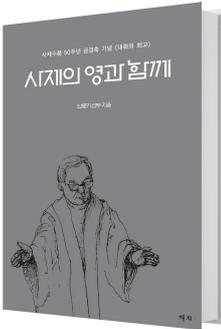
이 책은 불평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넘어 불평을 멈추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근본적인 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행복한 자유인
앤소니 드멜로**

빌 드멜로 지음 | 조한규 옮김
분도출판사 | 400쪽 | 2만원
문의: 02)2266-3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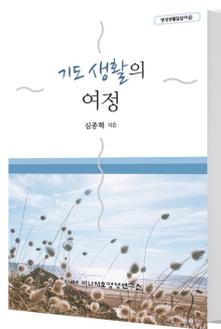
살아생전 수많은 강연과 저술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의 영적 갈망을 북돋우고 깨달음을 선사한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 앤소니 드멜로. 이 책은 그의 친동생만이 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드멜로와, 많은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벗이자 스승이요 신비가인 드멜로를 조화롭게 그려낸다.



신간
사제의 영과 함께

안문기 지음
예지 | 228쪽 | 1만천원
문의: 031)9008061

7년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한 안 신부는 부여, 대전, 천안, 당진에서 주임신부로서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열과 성을 다했다. 사제 수품 50년을 맞이하여 책을 발간한 안 신부는 이 책을 통하여 사제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신간
기도 생활의 여정

심중혁 지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104쪽
7천원 | 문의: 02)3276-7794

이 책은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40년 동안 예수회 수도자이자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해온 기도 체험을 바탕으로, 인생 여정과 연령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신자들에게 나눠준다.



신간
하느님과 별

크리스토프 케르하르트 지음
분도출판사 | 136쪽 | 1만2천원
문의: 02)2266-3605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과 천문학은 늘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둘은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둘이 다른 길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간 것은 겨우 수백 년 전이다. 사제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저자가 천문학과 신앙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연극
리미트

공연시간: 금 20시, 토 15시, 18시
문의: 02)719-0988
입장권: 전석 4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1인 4명 70% 할인

연극 <리미트>가 JTN 아트홀 2관에서 오픈 런으로 공연된다. 대하로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로 첫사랑의 추억을 유쾌한 아이디어로 풀어냈다. sni코리아의 감초 김민교가 직접 작·연출, 출연까지 하는 작품이다.



774-1784(☎)
753-1784(FAX)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라리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울) 신부

【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 】

■ 미사 전 준비

- 미사 참례자는 대성전 입장 전,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조사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합니다.
-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전으로 입장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해둔 지정석에만 앉습니다.

■ 미사 중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거나 가능한 한 조용히 응답합니다.
-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합니다.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예: 평화의 인사 등).
-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합니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아멘' 합니다.
- 봉헌과 영성체 행렬 시 앞 사람과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 성경과 성가책은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미사 후

- 사용한 주보는 성당에 두고 가지 않고 가져갑니다.
- 미사 후에는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미사 30분 전까지 대성전 출입을 통제 하오니 미사가 끝나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 5월 17일 현재,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상기 세부지침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먼저 안내드릴 예정 이오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홍보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5월 24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제54차 홍보 주일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2차 헌금이 있었습니다.

◎ 미사 재개에 따른 기타 방침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설 고해소와 예비신자 교리학교 운영, 본당 제 단체의 모임과 회합, 외부 대관행사는 '계속 중단'됩니다.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대성전 개방 시간

☞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주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되며,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일미사 참례자에 대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중단됩니다.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 참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엘리사벳 장학회는 1994년 2월 설립되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배움의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5/4-5/10).....19,652,000
 - 부활 제 5 주일 헌금.....9,413,090
 - 감사헌금 (5/4-5/10).....1,250,000
- 이 가브리엘라 / 이 글라라 / 이 도나다
이 안나 / 임 아녜스 / 최 안나